

합천 성산토성 570번지 일원 정밀발굴조사 현장 공개설명회 개최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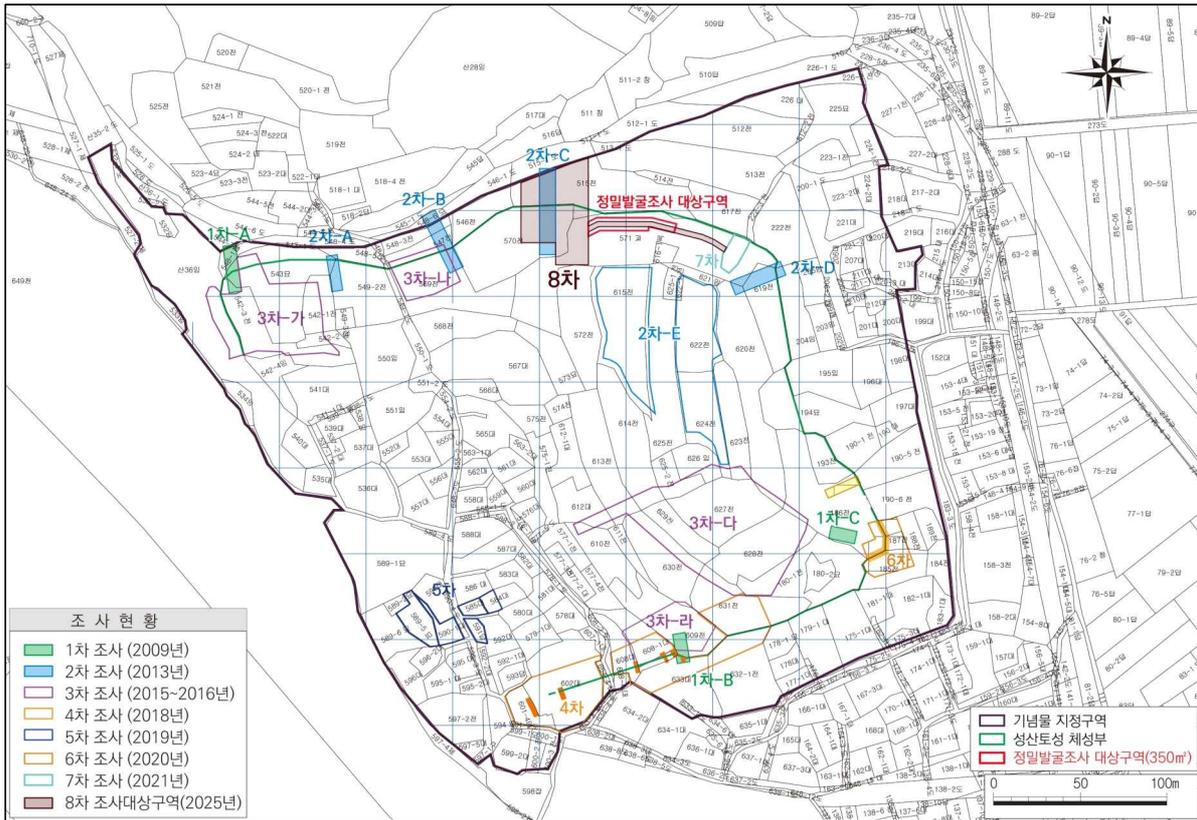
1. 일 시 : 25년 12월 12일(금) 오전 10시 30분
2. 장 소 :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570번지 일원(합천 성산토성)
3. 대 상 : 합천군민, 가야사 및 성곽 연구자, 학생 등
4. 발굴조사 개요
 - 허가번호: 제2025-2126호
 - 발굴유형: 정밀발굴조사
 - 조사기간: 2025년 8월 19일 ~ 2025년 12월 22일(*실조사일수 50일)
 - 조사기관: 경남연구원 경남학센터

5. 발굴조사 내용

- 합천 성산토성은 다라국 중심세력의 묘역인 국가사적 옥전 고분군의 남쪽에 접한 황강 변의 독립구릉에 위치하며, 고대 주요 교통로인 황강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특징과 성 내부에서 생활유적, 제사유적, 특수건물지인 대벽 건물지,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체성부 규모와 축성 현황 등이 확인됨. 방어 및 군사상의 목적과 더불어 옥전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의 중심 지배공간, 즉 왕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.
- 본 조사는 국가유산청 ‘2025년 국가유산청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’ 및 경상남도 ‘2025년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’ 으로 추진되는 학술조사이며, 석성과 토성의 축성기법, 축성시기, 축성주체를 확인하고 특히 국가지정유산 사적 지정 과정에서 요구된 핵심 보완사항인 석성과 토성의 중복관계 규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.
- 조사결과, 외벽과 내벽을 갖춘 가야시기 석성이 확인되었으며, 이 석성과 중복되는 가야시기 토성 체성부 역시 확인됨. 석성 하부에서는 토제와 다량의 가야시기 생활 유물이 출토되는 토성이 조성되어 있어 성산토성은 목책 토성에서 토성, 이후 석성으로 단계적으로 개축된 것으로 파악됨.
- 이번 합천 성산토성 정밀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옥전고분군 축조세력의 독자적 축성 기법과 토성에서 석성으로 넘어가는 체성부 변화 양상은 고대 토목기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, 향후 국가사적 지정에 필요한 기초 학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.



사진 1. 성산토성 유적배치도



도면 1. 성산토성 유적배치도



사진 2. 합천 성산토성 570번지 정밀발굴조사 노출 성벽 전체 전경(직상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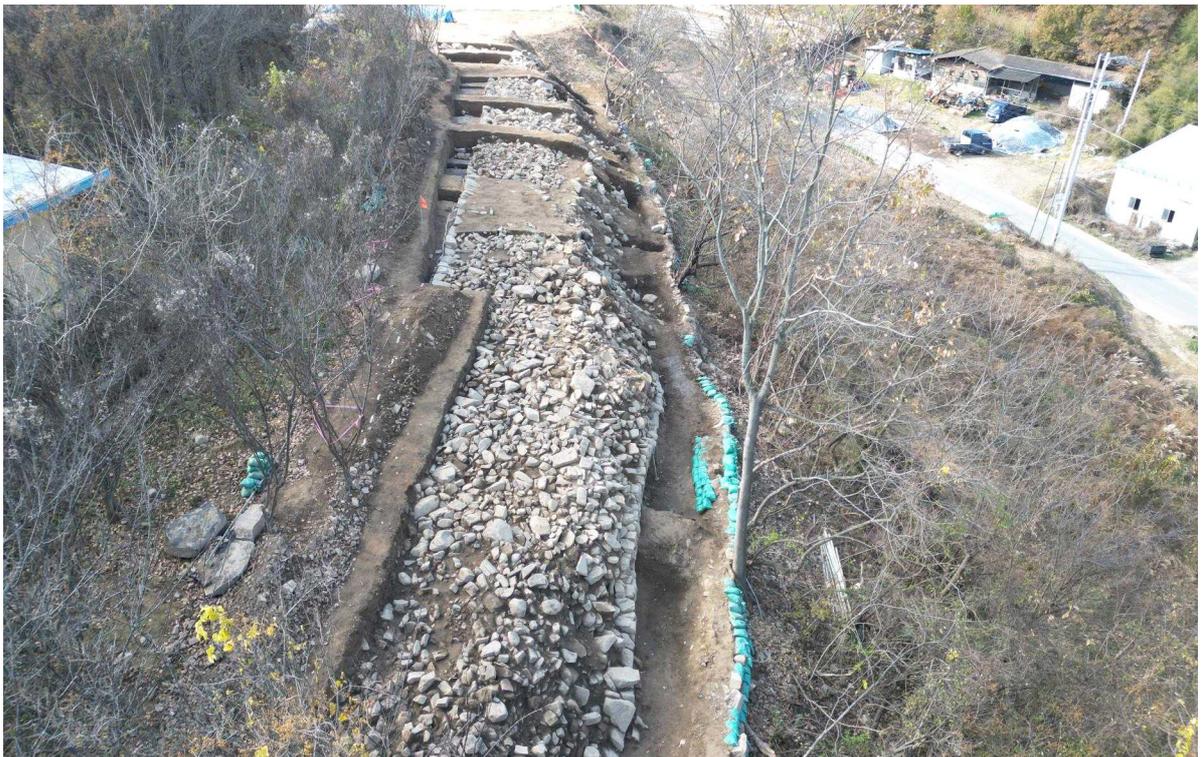


사진 3. 조사대상지역 노출된 석성 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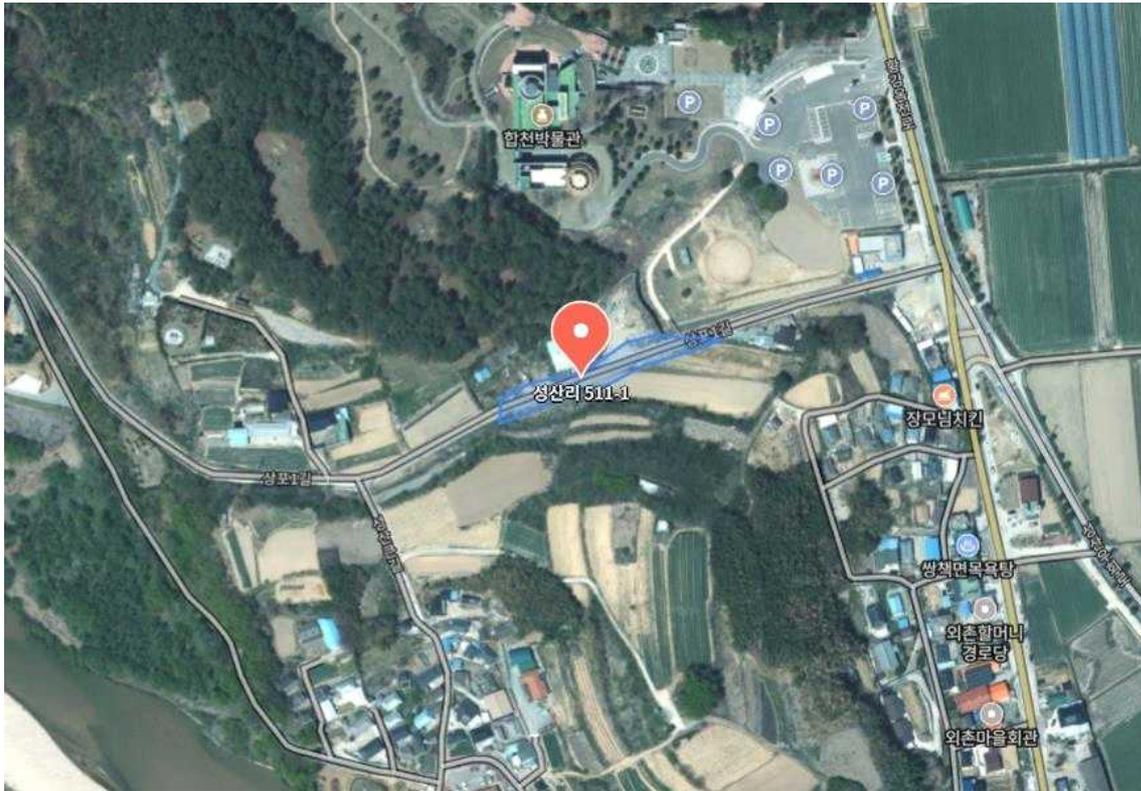


사진 4. 석성 내벽과 토성 중복 양상 층위



사진 5. 석성 내탁부 주변 고배 출토상태 전경

6. 조사지역 위치 (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511-1번지)



7. 문의처

- 책임조사원: 이재명(010-2270-4042)/ 조사원: 정익환(010-2584-7785)